

# 2008년 시기문학 분야 연구 동향

임재욱(서울대)

1. 서론
2. 분야별 연구 동향 개관
  - 2.1. 고대가요 및 향가
  - 2.2. 고려가요 및 약장
  - 2.3. 시조
  - 2.4. 가사
  - 2.5. 잡가 및 근대시가
  - 2.6. 일반론 및 기타
3. 결론

## 1. 서론

이 글은 2008년에 고전시가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전반적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전시가 분야에서는 자료집이 3권, 저서가 13권, 학위논문이 30편, 학술지 논문이 166편 제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연구 성과도 없지 않겠지만, 조사된 200여 편의 연구물을 통해서 주요한 연구 동향은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수행해 온 고전시가 분야 연구 성과의 정리 방법을 참고로 하여 이 글에서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먼저 장르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장르별 분류라고 하는 선행 연구의 정리 방법을 따르면서도 이 글에서는 연구 동향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장르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다시 ‘장르론 및 일반론’, ‘작품 연구’, ‘타학문 연계 연구’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 가지 하위 영역의 세부

항목도 설정하여 보았다.

특히 고전시가 분야 가운데에서도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조와 가사 장르의 경우 세 가지 하위 영역만으로는 모든 연구 성과를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조 장르에는 ‘가집 및 악보 연구’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했고, ‘작품 연구’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개별 작품론’, ‘작품 유형론’, ‘사설시조 연구’, ‘시조 한역 연구’, ‘가사 한역 연구’, ‘현대 시조 연구’ 등을 설정했으며, ‘타학문 연계 연구’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는 ‘음악학’과 ‘외국문학’ 등을 설정했다.

연구 동향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이러한 분류는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또 논리나 체계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러한 분류의 실상은 우리 시가 연구가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서 시가 연구 분야의 분류 방법도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 정리한 2008년 시가문학 분야 연구 동향이 연구자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2. 분야별 연구 동향 개관

### 2.1. 고대가요 및 향가

고대가요와 향가 갈래에 대한 연구로는 저서 2권, 학위논문 5편, 학술지 논문 27편이 조사되었다. 성호경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엮으면서 그 동안의 향가 연구사를 정리하고, 20세기 초의 일본인에 의한 향가 해독에 관심이 나타나는 가운데, <공무도하가>, <혜성가>, <풍요>, <우적가>, <도술가>, <처용가>, <안민가>, <혜성가>, <찬기과랑가> 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고, 국어학 분야 연구자들의 향가와 향찰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2.1.1. 장르론 및 일반론

고운기와 임경화는 20세기 초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향가 해독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고운기는 가나자와 쇼사부로(金澤庄三郎)가 가장 먼저 향가 해독에 뛰어들어 향가의 철자법이 일본의 만요가나(萬葉假名)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복잡한 언어 구성을 가진 고대 한국어가 일본어처럼 간단한 차자 표기 체제를 갖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면서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은 아유가이의 입장을 계승했다고 했다.

최선경은 향가와 배경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성상을 연구하였다. <헌화가>, <처용가>, <서동요>에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인이 나타나고 <제망매가>, <원왕생가>, <도천수대비가>에는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이 나타나는 데, 이 두 유형의 여성상은 결국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통한다고 했다.

이연숙은 고대 동아시아 불교와 우리의 향가 및 일본 시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면서, 삼국유사 소재 향가나 일본 문학에 보이는 운문과 산문의 결합형식이 불교의 과급에 따라 중국에서 생긴 변문의 영향이라고 했는데, 운문과 산문의 결합형식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존재하는 보편적 양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 2.1.2. 작품 연구

신재홍은 주체와 타자의 관점에서 <우적가>와 화랑세기 소재 비보와 유지의 이야기를 비교하였다. 비보와 유지의 이야기에서 비보가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타자를 수용했다면 <우적가>의 화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초월적 관점에서 타자를 구도의 길로 이끌었다고 했다. 박재민은 <풍요>의 형식을 재구하고 몇몇 구절을 새롭게 해독했다. <풍요>는 4구체보다는 현재의 <방아노래>와 같이 후렴구를 지니

고 있는 교환창 형식으로 보아야 하고, ‘良’과 ‘多羅’를 각각 ‘명령형어미’와 ‘세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밖에 공무도하가의 국적에 대해 논의한 남재철의 논문, 혜성가·도솔가의 일원론적 세계관에 대해 고찰한 허남준의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 2.1.3. 타학문 연계 연구

황선엽, 박진호, 양정호, 양희철, 남풍현, 이용 등이 어학적 연구로 향가에 접근하였다. 특히 박진호는 향찰와 같은 차자 표기인 석독구결이나 이두 같은 자료가 향가 해독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석독구결과 음독구결을 활용해 향가 일부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또 황선엽이 『삼국유사』와 『균여전』의 향찰 표기자를 비교한 논의나 〈安民歌〉 해독을 새롭게 시도한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향가는 어학적 지식이 없이는 해독과 이해가 불가능한 갈래인 만큼, 국어학 분야뿐 아니라 문학 분야 연구자들도 어학적 연구에 좀더 관심을 갖고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2. 고려가요 및 악장

고려가요와 악장 갈래의 연구로는 학위논문 2편, 학술지 논문 12편이 조사되었다. 북한 문학사에서 고려속요가 설명된 양상을 파악한 논의와 고려가요의 정서를 정밀하게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정읍사>, <청산별곡>, <서경별곡>, <기우목동가>, <화산별곡>, <구령별곡>에 대한 작품론이 시도되었는데, 특히 <화산별곡>과 <구령별곡>은 새롭게 발굴된 경기체가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2.2.1. 장르론 및 일반론

조규익은 북한 학자들이 고려속요를 봉건 통치배들에 대한 투쟁과 저항의 관점에서만 파악한 점은 잘못되었지만 음악과 문학의 통합체인 부르고

듣는 문학으로 이해한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정기선은 석사논문에서 라자러스의 방법을 활용해 고려가요의 정서를 구문의 유형 및 화자의 진술방식과 관련지어서 파악하고자 했다.

### 2.2.2. 작품 연구

민찬은 <청산별곡> 제7연의 ‘사슴’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관련지어, 제3연에 나오는 ‘새’가 鶴舞에 등장하는 ‘새로 분장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해석은 내놓았고, 임재욱은 ‘강’과 ‘배’가 나오는 다양한 시가 작품을 검토하여 <서경별곡>의 ‘대동강’과 ‘배’가 여성과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김승우는 ‘용비어천가도’와 ‘용비어천가약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용비어천가>가 궁중에서 정재로만 향유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림이나 축약본의 형태로 변형되어 지방에서도 향유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외에 <화산별곡(花山別曲)>과 <구령별곡(龜嶺別曲)>이라는 신출 작품을 소개한 김영진의 논문, <기우목동가(騎牛牧童歌)>의 구조와 문학사적 위상을 검토한 김종진의 논문도 경기체가에 관한 연구로 주목된다.

### 2.3. 시조

시조에 대한 연구로는 저서 3권, 학위논문 18편, 학술지 논문 65편이 조사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에서는 연구 영역의 확대와 시기의 연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시조 문학에 대한 북한 쪽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논의가 있었고, 20세기 초중반의 시조와 현대시조를 연구한 논문도 다수 제출되었다. 새로 발견된 가집이 3종이나 소개되는 가운데, 시조집에 대한 연구는 가집에서 나아가 약보나 20세기 전반의 가집 및 해방기의 시조 교재로까지 연구의 영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훈민가>, <경한정감흥가(景寒亭感興歌)>,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유원십이곡(楡院十二曲)>, <울리유곡(栗里遺曲)> 및 신희, 윤선도,

정훈, 위백규, 주세봉 등의 작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고, 사대부시조, 애정시조, 강호시조, 기녀시조, 육가형시조 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었다. 특히 신흠과 위백규의 시가에 대해서는 한시와 함께 고찰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시조 한역의 문제나 사설시조의 특징을 살핀 연구도 제출되었고, 시조를 음악과 함께 고찰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2.3.1. 장르론 및 일반론

조규익은 북한문학사 서술에서 시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주체사상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했다. 주체사상 등장 전에는 양반 사대부 문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피지배 계층과 진취적 양반들이 성취한 미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남한의 학자들과 시조를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훨씬 객관 타당한 측면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했다. 주체사상 등장 후에는 조선 전기와 중기의 작품들에 대한 해석에서는 남한 학자들의 관점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후기의 작품으로 갈수록 남북한의 입장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북한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가 연구에 대한 관심은 시가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나 통일 시대의 문학 연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형대는 시조의 정전화 과정에 대해 고찰하면서, 당시 정전으로 구성된 시조 장르 내부에서 가장 집중적인 선택을 받았던 것들은 19세기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 흥망이나 위기를 노래한 회고류 작품들로 그 기저에는 민족국가를 향한 1920~30년대 사람들의 열망이 투사되어 있었다고 했다. 고은지는 1920년대 초반에 유행한 시조놀이에 대해 살폈다. 시조놀이는 고시조를 적은 카드를 모아서 서로 짝을 맞추어 승부를 가리는 유희로, ‘조선취미의 滿悅’이라는 오락적 목적과 ‘유익한 수양’이라는 교훈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져, 시조가 가창의 연행공간이 풍류방을 떠나 조선 문화의 정화로 재배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 2.3.2. 가집 및 악보 연구

김학성은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홍만중의 두 가집에 대한 서문, 곧 「청구영언서」와 「이원신보서」를 분석하였다. 김학성은 이 두 서문을 통해 홍만중이 지금은 전하지 않는 두 개의 가집을 편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영언』이 유명씨의 가사와 시조 작품을 시대별 신분별 순서로 편집하고 혼자서 吟誦할 수 있는 작품을 모은 것이라면, 『이원신보』는 무명씨의 시조작품을 중대엽과 북전의 순서로 편집하고 악공의 반주와 기녀의 전문적인 맴으로 향유하는 작품을 모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요즈음 새로운 가집에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집도 나타나 그 전모를 확인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권순희는 신발굴 가집인 『海東歌譜』(전북대 소장)와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時調音律』(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나손문고 소장)을 소개했다. 전자는 『가곡원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수백 수의 시조를 수록한 사설목록집이 아니라 곡조별로 1~5수의 대표 작품만 수록한 연창용 성악보집이라고 결론지었고, 후자는 20세기 초 가곡 연행의 실질을 반영하여 가곡 연창용 대본이나 교본으로 활용할 의도로 편집된 가집이라고 했다. 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문시가를 소개하면서, 신출 경기체가 <花山別曲>·<龜嶺別曲> 및 신출 시조를 188수나 수록하고 있는 『靑丘永言』(계명대본)의 존재를 알렸다.

신경숙은 옥소 권섭의 소장 도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성악보 『歌譜』를 소개하였다. 이 악보에는 중대엽 곡조가 노랫말과 함께 水波型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권섭의 악곡 경험이 주로 중대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박용찬은 해방기에 출판된 시조보급형 교재와 독본류 교재 및 초중등 국어교재에 실린 시조 등의 시조문학교재를 살펴보고, 작품의 선정과 배치에 교과서 편찬 주체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이유진은 전국 각 대학 도서관에 산재해 있는 『남훈태평가』 이본 총 25부를 살폈다. 현전하는 『남훈태평가』는 1권1책본과 1권2책본이 있는데, 1권

1책본은 모두 재판본으로 초판본과 거의 같은 판목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2권2책본은 1권1책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 사본 성격의 이본으로 그 저본은 초판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윤설희는 석사논문에서 20세기 초 가집 <精選朝鮮歌曲>이 독서물로 편집된 것으로 가곡의 향유가 듣는 방식에서 보고듣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 외 가곡창 가집 『대동풍아』를 연구한 김태균과 『남훈태평가』와 그 이후 시조창 가집을 대상으로 19세기 중·후반 시조창 가집과 가곡창 가집의 상호소통 양상을 연구한 송안나도 석사 논문을 제출하였다.

### 2.3.3. 작품론

#### -개별 작품론

최재남은 <훈민가>가 <경민편>과 엮여서 보급되는 과정에, 노래를 통해 노래의 작가에 대한 친밀한 이해와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서인·노론계 인물의 집단적 노력이 작용했다는 점을 밝혔다. 남동걸은 퇴계의 <도산십이곡>과 율곡의 <고산구곡가>를 계승한 광시징의 <경한정감흥가(景寒亭感興歌)> 24수를 재검토하여, 이 작품이 한시의 註釋時調이자 8수·8수·4수·4수가 결합된 연작시조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송지언은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이 출사의 뜻을 이루지 못한 권호문이 오랜 세월 갈등을 겪은 끝에 깨달음과 함께 갈등이 해소되는 어느 순간을 맞이하여 자신의 내면이 변모한 과정을 재구성한 통과제의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라고 했다. 양희찬은 월산대군의 시조 1수와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에 수록된 治父의 禪詩 1수를 비교하였다. 두 작품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표현과 형상화 기법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2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비교를 정밀하게 한 연구 방법이 돋보인다. 그 밖에 김광욱의 <율리유곡(栗里遺曲)>을 지역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김창원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 -작품 유형론

김홍규는 18~19세기 애정시조에 나타난 ‘불안한 사랑’ 모티프를 분석하였다. ‘불안한 사랑’ 모티프는 ‘짜사랑, 새 님, 남의 님’ 등의 어휘나 착잡한 갈등, 긴장, 조바심 등의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조선 왕조의 규범과 제도에 억압되었던 욕망이 분비되어 나온 것이자 20세기 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애 시대’를 향한 감정의 잠재적 에너지를 함축한 것이라고 했다.

나정순은 ‘釣月耕雲’과 ‘致君澤民’의 개념을 통해 조선 전기 강호 시조에 나타난 사대부 작가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 살폈다. 김용찬은 금옥총부에 실린 홍선대원군에 대한 작품을 검토하여, 안민영의 눈에 비친 홍선대원군과 그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당대 정치사의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신흠의 시조를 한시 및 그의 문학과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양태순은 신흠의 시조 6편을 주제, 소재, 갈래, 시기의 측면에서 한시와 비교·고찰하여, 그의 시조가 주제와 시기의 측면에서 한시와 공통된 기반을 지녔고, 남녀간의 연정을 표현하면서 궁녀와 신하의 연군지정까지도 함축한다고 했다. 조성진은 신흠이 악부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의 가치를 긍정하여, 자신의 내밀한 감정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 곧 ‘傷世意識’을 <방옹시여>의 시조를 통해 표현했다고 했다. 신흠은 수준 높은 시조 작품을 많이 창작한 작가인 만큼, 앞으로도 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상은 위백규의 한시와 시조 및 가사를 고찰했는데, 한시인 <연년행>은 신분이 위태로워진 향촌사족의 울분을 토로한 것이고, 시조인 <농가>는 교화적인 어조로 이상적인 농촌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며, 가사인 <자화가>는 갖가지 부정적 행동을 열거·비판하면서 작가의 격앙된 정서를 전달하려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작가가 표기수단과 장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 정서와 현실인식을 다르게 표현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 -사설시조 연구

김학성은 사설시조가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평시조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로 말을 촘촘히 엮어 짜나가는 서술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평시조의

하위갈래로, 기녀와 악공이 동반되는 주석에서 희극적인 재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창작되었기 때문에 어법, 소재, 수사, 문체 등의 측면에서 평시조와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고 했으며, 그 유래도 고려 말에 평시조와 함께 향유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는 점을 변안렬의 <불굴가>에 대한 고증을 통해서 규명했다. 나아가 사설시조의 서술 특징은 현대시조에 ‘형상의 연쇄적 병치형’과 ‘이야기형’으로 계승되어 있다고 했다.

조흥옥은 사설시조가 장형화되는 원리를 장편 한시의 차용, 서술 대상의 확장, 표현 방식의 구체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폈다.

신윤경은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노골적 성애 묘사를 ‘연애 걸기’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사설시조에 흔히 보이는 노골적인 성적 담화들은 상대방과 관계 맺기에 성공하고자 갈망하는 화자가 적극적 실천 의지를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 -시조 한역 연구

장정수는 기녀 가련이 짓고 옥소 권섭이 한역한 <변노과가곡십오장(變老婆歌曲十五章)>을 소개했다. 이 작품은 87세 노인인 기녀 가련이 사대부 남성을 사랑하면서 느낀 심리적 변화와 좌절을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 18세기에 형성된 새로운 기녀시조의 존재를 알려준다고 했다.

#### -현대시조 연구

정호완은 노산 이은상과 가람 이병기 이후 현대시조의 양상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고, 김흥열은 조정 김상옥 시조의 현대성 추구 의지를 根源意識과 정결성, 의미의 진실성 탐구, 景中之情의 심상의 측면에서 살폈으며, 조남현은 일제시대에 간행된 잡지인 『청춘』, 『조선문단』, 『신민』, 『동광』, 『신생』, 『시문학』, 『비판』, 『신동아』, 『신인문학』, 『삼천리』, 『문장』 등에 발표된 시조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박미영은 미주 시조시인협회 회원들이 발표한 세 권의 시조집 『사막의 달』, 『사막의 별』, 『사막의 민들레』에 투영된 디아스포라적 작가 의식에 대해 고찰했다.

### 2.3.4. 타학문 연계 연구

#### -음악학

신경숙은 『지음』과 『현학금보』를 살펴서 중대엽과 만대엽의 ‘臺歌’(작을 이루는 노래)를 찾는 성과를 올렸다. 신용순은 향제 평시조의 가락 진행법과 표현방법을 한시로 표현한 ‘시조 영시’를 시조창의 음악적 특징과 관련 지어 살폈다. 문주석은 시조에 나타난 ‘적(笛)’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 -외국문학

임성철은 박사논문에서 시조와 만요(萬葉) 가요의 자연관을 비교했다. 시조에서는 자연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작품을 많이 찾아 볼 수 없는 데 반해, 만요 시가에서는 자연이 세심한 관찰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신선하고 살아 생동하는 활기찬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중국 당대의 기녀 설도와 조선의 기녀 황진이의 시가를 비교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준영은 두 여인이 모두 기녀이면서도 여성으로서 느낀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자연물에 비유하는 수준 높은 작품을 창작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개척한 점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 2.4. 가사

가사장르 분야의 연구 업적으로는 자료집 3권과 저서 2권, 학위논문 5편, 학술지 논문 38편이 조사되었다. 가사 장르의 특징이나 본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형태와 율격에 대한 관심도 표출되는 가운데, 특히 가사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만언사>, <착정가>, <청금곡>, <노처녀가>, <표해가>, <경복궁 영건가>, <서왕가>, <석별가>, <연행가>, <노처녀가> 등에 대한 개별 작품론이 이루어졌고, 여성 기행가사, 남성 애정가사, 유배가사, 규방가사,

충신연주지사류 가사, 교본성 성격을 지닌 가사, 상품화폐 경제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 가사 등에 대한 유형론적 탐구가 진행되었으며, <관동별곡>의 한역시에 대한 연구도 나타났다. 종교가사에 대한 논문이 다수 제출되었으며, 문학치료학과 교육학적 관점과 방법을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 2.4.1. 장르론 및 일반론

가사 장르의 본질과 현대적 계승 문제를 다룬 논의로 김학성과 김대행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김학성은 가사를 4음4보격의 율격에 맞추어 다정하게 말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다 갖추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자상하게 말하는 진술방식, 곧 어떤 사실(화제거리)을 알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담화체양식을 보이므로 진술(교술, 주제적) 양식에 해당하는 장르라고 하고, 한국시가의 율격 양식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게 보편화된 양식이기 때문에 현대적 장르로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대행은 Oscamp & Schultz의 ‘태도’에 관한 이론에 기대어 가사를 ‘태도의 시학’을 기반으로 한 장르로 보았다. Oscamp & Schultz에 따르면 ‘태도’는 결과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好惡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고, 우연하거나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이며, 거기에 지속성이 작용한다. 그리고 ‘태도’는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인 ‘정의적 요소’, 대상에 대한 행동 경향을 가리키는 ‘행동적 요소’, 그리고 대상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가리키는 ‘인지적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가사의 유형과도 관계를 갖는다. 곧 도덕가류 가사가 ‘인지적 요소’에 관계되며, 계녀가류와 같은 가사에는 ‘행동적 요소’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강호가사나 기행가사에는 ‘정의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 김대행은 가사의 본질을 ‘태도의 시학’에 의거하여 바르게 파악할 때 현대 사회로의 계승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태도의 시학’이 기존의 방식보다 가사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사의 현대적 계승 문제는 함복희, 이정옥, 한지민의 논문에서도 논의되

었다. 특히 함복희는 가사를 현대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DB화와 스토리텔링화와 같은 대중적 소통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강홍구는 국어학에서 이루어지는 방언 연구의 기법을 활용하여 울진지방 가사의 운율을 분석했는데,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연구 의의는 퇴색될 것이다.

#### 2.4.2. 작품 연구

##### -개별 작품론

정인숙은 <만연사>에 나타난 자전적 술회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 나타난 자전적 술회에는 중인 신분인 작가의 고유함과 자긍심이 드러나고, 서울과 추자도라는 공간적 거리와 화려한 과거와 고통스런 현실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중첩되어 시적 화자가 회화화되기도 하며, 여기에 유배지의 비루한 삶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하고, 이러한 자전적 술회를 통해 공감의 글쓰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만연사>가 당시 궁중 여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고 했다. 이 논의에서는 주로 작품 자체에 주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만연사>의 자전적 술회의 특징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자전적 술회로 이루어진 다른 작품들, 예를 들면 계녀가나 화전가류와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정무룡은 새로 발견된 풍수가사 <청금곡(靑錦曲)>을 소개하고 이 작품이 成居士가 지었다고 하는 <답산부(踏山賦)>의 개작본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최규수는 처녀가 서술 주체로 되어있는 <석별가>를 통해 조선 후기 결혼에 직면한 처녀의 정서와 욕망을 조명했으며, 조원형은 천주가사 <사향가>를 텍스트언어학적으로 검토하여 이 작품이 서양 음악 소나타의 형식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다. 정한기는 <연행가>에 표현된 客愁의 다양한 양상을 연행록과 대비하여 고찰했다.

## -작품 유형론

최미정은 충신연주지사로 분류되는 <이소>·<만분가>·<사미인곡>·<속미인곡>을 주체-타자의 이론으로 살피면서, 특히 송강이 <속미인곡>을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타자인 여성의 심리를 긍정하고 사회에서의 타자와 소외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배자-주체를 포기하지 않고 여성화자 뒤에 숨음으로써 유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하여, 충신연주지사와 송강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켰다.

정인숙은 남성작 애정가사인 <금루사>와 <농서별곡>이 기생을 형상화하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금루사>가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여성을 타자화된 존재로 표현하는 데 반해, <농서별곡>은 인물의 외모 외에 주변 환경에도 관심을 보이고 기생의 자기 술회를 삽입하거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드러내어 <금루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나정순은 규방가사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면서, 규방가사가 규범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문화적 관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에서 배태되는 ‘다정다감’과 같은 정서적 가치를 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도흠은 18~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상품경제에 대한 조선후기 사람들의 태도를 ‘비합리적 도덕주의자’, ‘합리적 축재자’, ‘비합리적 축재자’, ‘합리적 도덕주의자’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草野農夫) 오륜가(五倫歌)>의 화자는 ‘비합리적 도덕주의자’에, <텐동어미화전가>의 텐동어미는 ‘합리적 축재자’에, <우부가>의 개똥이는 ‘비합리적 축재자’에, <효부가>나 <복선화음가>의 새색시나 김씨 부인은 ‘합리적 도덕주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외에 여류가사에 표현된 국가의식에 대해 고찰한 박요순의 논문, 19세기 중국 사행가사 <서행록>과 <연행가>에 반영된 기행체험과 이국취향에 대해 고찰한 유정선의 논문, <팔역가>와 <오륜가>가 각각 조선 후기의 교양 교본 <택리지>와 <소학>과 관련되는 교본성 가사로 당대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했다고 본 노규호의 논문도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가사 한역 연구

조해숙은 시가연구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사 한역 작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관동별곡>의 한역 추이에 대해, 시적 정서가 도드라진 부분은 덜어내고 평이한 어휘로 정경을 그려내는 데 치중한 유한재의 한역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정철의 창작 시기와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한역일수록 한시다운 변용과 한역자의 취향이 과감하게 나타난 반면, 후대에 이루어진 한역일수록 가사 원작의 의식과 내용에 최대한 충실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또 가사 한역은, 그 목적이 한시 향유층에 의한 희작 또는 문자에 의한 기록성 추구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재창작에 가까운 변용을 추구하거나 당대 문인들의 의식과 취향을 반영하는 데에도 있었기 때문에, 가사의 수용과 향유 과정을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가사 한역에 대한 연구는 대상 작품을 확장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4.3. 타학문 연계 연구

박경주는 규방가사를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조선후기 향촌사족층의 여성들이 창작한 계녀가와 남성들이 창작한 단독형화진가에 ‘집단 자가치료’ 경향이, 여성들이 지은 탄식가와 남성들이 지은 계녀가와 탄식가 계열 작품에 ‘개인 자가치료’ 양상이, 공동의 연행과 창작으로 이루어진 화진가 계열 작품에는 ‘상호치료’ 과정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규방가사가 지닌 문학치료의 효과를 객관적 근거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한다면 보다 타당한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5. 잡가 및 근대시가

잡가 및 근대시에 대한 논문은 모두 6편이 조사되었다. 고정희는 비유기적 노랫말을 지닌 잡가 <제비가>가 ‘육망의 추구’와 ‘육망의 좌절’이라는 공통점에 따라 여러 노래들이 하나의 노래로 합성된 것으로, ‘전체’로

지양되지 않은 ‘개별자’의 경험이 곧 보편적일 수 있다는 서정시적 이념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성이 모자라는 작품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에 대한 개별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서정시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정희의 연구는 문학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가 연구에서 외면되어 온 잡가 작품에 문학적 의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그 외에 1910년대 창가와 잡가에 대해 고찰한 권도희, 유성기음반에 실린 잡가의 현황과 레퍼토리의 양상을 살펴본 박지애, 가사체(歌辭體) 형식의 창가화(唱歌化)에 대해 연구한 구인모, 20세기 전반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타국’인식과 형상화 방식을 논의한 최은숙의 논문도 이 분야의 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6. 일반론 및 기타

고전시가 전체를 통괄하는 자료집 1권과 저서가 6권, 시가의 여러 갈래를 넘나들거나 시가 분야 전체를 조망하는 학술지 논문이 18편 조사되었다.

조세형은 조선후기 가사와 사설시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근대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얻고자 했다. <텐동어미화전가>의 텐동어미는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긍정하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주체에 해당하고, <명월> · <합강정가> · <상저가> · <경주농부가>와 『청구영언』의 사설시조에는 탈근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여성적 연민과 배려, 낮고 온유한 목소리가 발견되며, 『초당문답가』의 노인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로 다기하게 분출된 새로움을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지닌 존재라고 했다. 조선후기의 시가 문학을 통해서 경험한 근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했던 근대를 짚어낸 논의는 탈근대를 준비해야 할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신재홍은 <제망매가>와 <사미인곡>에 나오는 ‘나뭇잎’나 ‘밤나비’를 죽음의식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제망매가>는 사색적인 의미의 죽음을, <사미인곡>은 정서적인 의미의 죽음을 그렸다고 보았다. 김용찬은 그동안



고전시가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쟁점들을 검토하고 현 단계에서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권정은은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시조에 접근하여, 시조를 관련 일화나 회화와 함께 제시하면 현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학작품의 감수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홍원은 고전시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인 ‘亦君恩’에 임금에 대한 송축 또는 忠君과 戀君의 정서뿐만 아니라 군주와 신하의 관계라든가 자연의 질서와 임금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질서를 연결 짓는 당대 사대부들의 사고 등과 같은 삶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고 했다.

### 3. 결론

이상으로 2008년 시가 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경향 중의 하나는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한 시도는 1)연구 대상 시기의 연장, 2)다른 학문 분야와의 협력, 3)북한문학사에 대한 관심, 4)새로운 가집과 자료의 발굴, 5)고전 갈래의 현대적 계승 등의 다양한 문제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가집 연구의 경우 그 시기는 개화기를 지나 이제 해방기로부터 확대되었으며, 현대 시조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학문 분야와의 협력도 국어학, 음악학, 한문학, 문학치료학, 외국문학, 여성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문학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시조나 고려가요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나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었다. 인터넷의 발달과 고전자료 DB의 구축으로 시가 영역에서 더 이상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신자료의 발굴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화기 시조 부흥 운동의 연장이라고 할 만한 가사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료, 방법, 주제 등 연구의 모든 측면이 갈수록 고갈되어가고 있는 오늘

날 시가 연구의 환경에서 이러한 연구 영역의 확대는 시가 연구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일이다. 이렇게 다각도로 확장된 연구 영역에서 앞으로 보다 심화된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면 시가 연구의 수준은 양과 질, 양 측면에서 모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고대가요 및 향가

## &lt;단행본&gt;

박인희, 『삼국유사와 향가의 이해』, 월인, 2008.

성호경, 『신라향가연구』, 태학사, 2008.

## &lt;학위논문&gt;

신배섭, 「향가문학에 나타난 '갈등'과 '화해' 양상 연구 : 『삼국유사』 소재 14수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박지영, 「처용가의 현대적 변용과 창작 교육」,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강희, 「고전시가에 나타난 '설득'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 상대가요 및 향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고대건, 「한국시가문학에 나타난 '넋두리'의 의미와 기능 연구 : 향가 <처용가>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미정, 「향가의 기원성에 대한 유형적 고찰」,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lt;학술지 논문&gt;

## (1) 장르론 및 일반론

김혜진, 「향가 창작 동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신라인의 미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신배섭, 「향가문학에 나타난 '갈등'과 '화해' 양상 연구」, 『畿甸語文學』 제18-20집,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8.

이연숙, 「고대 동아시아 불교와 문학」, 『동아시아고대학』 제18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최선경,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성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고운기, 「향가(鄕歌)의 근대, 1 - 김택장삼랑(金澤庄三郎)와 점패방지진(鮎貝房之進)의 향가 해석이 이루어지기까지-」,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임경화,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향가 해독」, 『국어학』 제51집, 국어학회, 2008.

함복희, 「향가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24집, 우리문화회, 2008.

류병윤, 「향가의 형성 기저(基底) 고찰」, 『한어문교육』 제19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8.

(2) 작품 연구

남재철,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국적(國籍)」,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신영명, 「7세기 초 신라 정치사와 <해성가>」, 『우리문학연구』 제24집, 우리문학회, 2008.

박재민, 「<풍요(風謠)>의 형식과 해석에 관한 재고」,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신재홍, 「우적가의 주체와 타자」, 『국문학연구』 제17호, 국문학회, 2008.

정진원, 「월명사(月明師)의 <도솔가(兜率歌)> 해독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20집, 구결학회, 2008.

박경우, 「處容 談論의 推移와 그 傳承의 問題」, 『洙上古典研究』 제28집, 洙上古典研究會, 2008.

허남춘, 「해성가·도솔가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민심의 조화」, 『語文研究』 第56輯, 어문연구학회, 2008.

신영명, 「<찬기과랑가>의 상징체계와 경덕왕대 정치사」, 『국제어문』 제43집, 국제어문학회, 2008.

(3) 타학문 연계 연구 / 기타

-국어학

박진호, 「鄉歌 解讀과 國語 文法史」, 『국어학』 제51집, 국어학회, 2008.

황선엽,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鄉札 表記字 비교」, 『國語學』 제51집, 국어학회, 2008.

황선엽, 「<安民歌> 해독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문화』 제42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양정호, 「鄉歌 解讀과 子音體系」, 『國語學』 제51집, 국어학회, 2008.

양희철, 「향찰 '白孫'의 연구」, 『언어학연구』 제13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08.

양희철, 「향찰과 이두 '장래(將來)'의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이용, 「향가 해독의 한계와 극복 방안」, 『국어학』 제51집, 국어학회, 2008.

-교육학

엄은열, 「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전시가 해석의 다양성 -<정읍사>를 사례로-」,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서평

최재남, 「향가의 해석과 미학의 맞물림 - 신재홍, 『향가의 미학』(집문당, 2006)에 대한 단견」,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2. 고려가요 및 악장

<학위논문>

정기선, 「고려시가의 정서와 그 표현 방식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강혜연, 「고려시가 경험 교육 연구 : 이별 노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학술지 논문>

### (1) 장르론 및 일반론

조규익, 「북한문학사의 고려속악가사」, 『온지논총』 제19집, 온지학회, 2008.  
 서철원, 「고려속요(高麗俗謠)의 어조를 통해 본 장르 관습의 양상」,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김명준, 「고려속요 형성에 관여한 외래성」,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신경숙, 「조선조 악장, 그 역동성」, 『漢城語文學』 제27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8.

### (2) 작품 연구

민찬, 「<청산별곡> 3연의 새와 학무」, 『한국언어문학』 제6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김종진, 「경기체가 <기우목동가(騎牛牧童歌)>의 구조와 문학사적 위상」,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고창수, 「<정읍사> 어구 분석의 몇 논점」, 『漢城語文學』 제27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8.  
 김영진, 「구촌(龜村) 이항로(李福老)의 경기체가 -<화산별곡(花山別曲)>과 <구령별곡(龜嶺別曲)>-」,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임재욱, 「<서경별곡(西京別曲)>에 나오는 '대동강(大同江)'과 '배'의 상징성」,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서철원, 「백제 문화권의 <정읍사>와 고려속요의 기원」, 『국어문학』 제44집, 국어문학회, 2008.  
 김승우, 「<용비어천도(龍飛御天圖)>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김승우, 『용비어천가약본(約本)』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 3. 시조

#### <단행본>

황충기, 『성을 노래한 고시조』, 푸른사상, 2008.

김학성 외, 『사설시조의 특성과 그 전망(학술세미나 자료집)』, 고요아침, 2008.

유권재, 『옛시조 인물 요람』, 한국학술정보, 2008.

#### <학위논문>

조지형, 「17~18世紀 九曲歌 系列 詩歌文學의 展開 樣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임성철, 「한·일 고시가의 자연관 비교 연구 : 시조와 만요가요의 자연 소재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허현희, 「고시조에 나타난 중국 관련 이미지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신명란, 「한국 근대 이행기 시조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태균, 「가곡창 가집 대동풍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송안나, 「19세기 중·후반 시조창 가집과 가곡창 가집의 상호소통 양상 연구 : -『남훈태평가』와 그 이후 시조창 가집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구선우, 「황진이 문학의 주제지향과 후대적 수용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준영, 「唐代 薛濤와 朝鮮 黃眞伊의 詩歌 比較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주영숙, 「사설시조의 변용양상 연구 : 한국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진은경, 「한국의 시조부흥과 일본의 단가혁신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혜순, 「기녀시조의 특질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윤설희, 「20세기 초 가집 <精選朝鮮歌曲>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보경, 「사설시조와 랩의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변승구, 「장시조의 개방성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교상, 「현대시조의 형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정병경, 「조정 김상옥 시조 연구 :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을 포함하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문희숙, 「정완영 시조 연구 : 『난보다 푸른 돌』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학술지 논문>

(1) 장르론 및 일반론

- 정종진, 「화자-청자 관계를 통한 시조의 담화 유형과 그 특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조규익, 「북한 문학사와 시조」,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고은지, 「20세기 놀이문화인 시조놀이의 등장과 그 시조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이형대, 「1920-30년대 시조의 재인식과 정전화 과정」,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2) 가집 및 악보 연구

- 김학성, 「시조의 향유전통과 흥만종의 가집편찬」,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서철원, 「『校註 歌曲集』을 통해 본 20세기의 고시조 향유와 전승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권순희, 「『海東歌譜』(전북대 소장)의 성격」,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권순희, 「『시조음율(時調音律)』의 편제와 가곡의 특성」, 『한국언어문학』 제6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권순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서의 자료적 가치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한국학논집』 제3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신경숙, 「권섭 『가보(歌譜)』의 악보사적 의의」, 『우리어문연구』 제30집, 우리어문학회, 2008.  
 박용찬, 「해방기의 시조 담론과 시조문학교재의 양상」,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이유진, 「방각본 한글 가집 『남훈태평가』의 서지 연구」, 『한국문화』 제43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김윤희, 「18세기 중, 후반 가집 특성의 일국면 -『영언류초(永言類抄)』, 『해이수(解我愁)』를 대상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이상원, 『詩餘(김선풍본)』의 편찬 체제 및 편찬 연대, 『개신어문연구』 제27집, 개신어문학회, 2008.

이상원, 『시여(김선풍본)』의 가집사적 위상,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3) 작품 연구

-개별 작품론

최재남, 「〈훈민가〉 보급의 경과와 그 의미」,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학회, 2008.

남동걸, 광시징의 <景寒亭感興歌> 연구,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김창원, 조선후기 近畿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 -김광옥의 <울리유곡(栗里遺曲)>을 대상으로-,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송지연,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과 통과제의」,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김상진, 안서우(安瑞羽)의 <유원십이곡(楡院十二曲)> 재조명 -강호인식과 연작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제19집, 온지학회, 2008.

김진욱, <농가>의 문예미 연구,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작품 유형론

이도흙, 「18~19세기의 시조에 나타난 사랑의 태도 유형 분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이상원, 「17세기 육가형 시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65집, 한국언어학회, 2008.

나정순, 「조선 전기 강호 시조의 전개 국면 -‘釣月耕雲’과 ‘致君澤民’의 개념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양희찬, 「〈五友歌〉 · 〈꽃나무〉 · 〈冬天〉의 짜임새와 ‘空間’에 관한 비교 고찰」,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류해춘, 「사대부시조에 나타난 겨울철 여가활동의 양상」,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윤영옥, 「自然山水와 人世紅塵」,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이영태, 「조선 후기 수작 · 기지 시조의 행방」,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 회, 2008.
- 김홍규, 「동아시아의 시가문학과 근대의 발견 ; 조선 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 시대'의 전사」,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 김용찬, 「안민영과 홍선대원군 - 『금옥총부』를 중심으로-」, 『배달말』 제43집, 배달말학회, 2008.
- 김상진, 「사대부시조에 나타난 밤의 성격 -16,17세기 작품을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 조태성, 「고시조에 구현된 물[水]의 심상」,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 손영화, 「시조에 나타난 꿈 모티프의 의미 지향」, 『한국언어문학』 제66집, 한국언어학회, 2008.
- 신영명, 「여말선초 시조의 세 가지 국면」,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 양희찬, 「선시(禪詩)와 시조(時調)의 교섭(交涉) 편린(片鱗)」, 『우리어문연구』 제32집, 우리어문학회, 2008.
- 양태순, 「신흥의 시조와 한시의 관련 양상 연구 -연정을 주제로 한 시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 김학성, 「孤山 尹善道 時調의 美的 成就와 그 價値」, 『語文研究』 第137號,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전재강, 「주세붕 문학의 다원적 창작 국면과 정합적 성격」,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 박상영, 「정훈 시조의 구조적 특질과 그 미학적 의미」,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 조성진, 「신흥의 악부 인식과 민속시가의 재인식 -신흥의 악부체시(樂府體詩)와 「방옹시여서(放翁詩餘序) 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 최상은, 「18세기 시가의 정서와 현실인식 지향 -위백규(魏伯珪)의 한시(漢詩), 시조(時調), 가사(歌辭)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24집, 반교어문학회, 2008.
- 오선주, 「이신의(李愼儀) 시조에 나타난 '벗' 인식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67집, 한국언어학회, 2008.

-시조 한역 연구

- 김명순, 「반계 류형원의 시조 한역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제42집, 국어교육학회, 2008.
- 김명순, 「李滉 時調의 漢譯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 장정수, 「『번노과가곡십오장(飜老婆歌曲十五章)』을 통해 본 기녀 가련(可憐)의 내면 의식」, 『우리어문연구』 제30집, 우리어문학회, 2008.

-사설시조 연구

- 김학성, 「辭說時調의 敘述特徵과 現代的 繼承」, 『語文研究』 第36卷 4號,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신윤경, 「사설시조에 나타난 '연애걸기'의 양상과 그 의미-〈만황청류〉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26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8.
- 김정화, 「사설시조와 連歌(렌가)에 대한 비교 고찰」, 『語文學』 第101輯, 한국어문학회, 2008.
- 류혜춘, 「不倫을 媒介로 한 辭說時調의 性談論」, 『우리문학연구』 제24집, 우리문학회, 2008.
- 조홍욱, 「사설시조의 장형화 양상 연구 -평시조 작품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제27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8.
- 한정수, 「사설시조의 언어 세계」, 『長安論叢』 제28집, 장안대학, 2008.

-현대시조 연구

- 정호완, 「현대시조의 변모와 과제」, 『한어문교육』 제19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8.
- 최홍열, 「金相沃 時調에서 發現된 文學觀」, 『어문논집』 제39집, 중앙어문학회, 2008.
- 임종찬, 「의미연결에서 본 丁崧 이영도 時調 연구」,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 이완형, 「고시조와 현대시조, 그 이어짐과 벌어짐의 사이」,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 민병관, 「정완영 시조에 나타난 유가적 인본주의」,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 조남현, 「일제하 잡지의 성향과 현대시조의 경향」, 『선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박미영, 「미주 시조 선집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작가 의식」,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 (4) 타학문 연계 연구

##### -음악학

신용순, 「시조 음보와 시조창,가곡의 박자 상관 고(考)」,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신경숙, 「中大葉·慢大葉과 臺歌」, 『시조학논총』 제29집, 한국시조학회, 2008.

신용순, 「시조 영시(影詩) 분석」,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문주석, 「시조에 나타난 '적(笛)'의 역할」, 『한국음악사학보』 제40집, 한국음악사학회, 2008

##### -교육학

최홍원, 「신흥의 시조와 경협교육 연구」, 『문학교육학』 제25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류수열, 「시조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가능성」,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염은열, 「고전시가 교육의 내용 탐색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읽기를 예로-」, 『선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 4. 가사

##### <단행본>

이재식, 『유배가사』, 시간의 물레, 2008.

『한양가 519년』, 신영길 역, 서예문인화, 2008.

정철, 『송강가사』, 김갑기 역, 지만지고전천출, 2008.

윤덕진, 『조선조 長歌 가사의 연원과 맥락』, 보고사, 2008.

김지용, 『농가월령가와 월여농가 詩』, 명문당, 2008.

##### <학위논문>

윤주한, 「동학가사 연구 : 용담유사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형숙, 「천주가사 <삼세대의>의 신앙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한지민, 「규방가사의 현대적 계승 양상 연구 : -이휘·김정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유인희, 「壬·丙 兩亂期 戰爭詩歌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최지연, 「미디어를 활용한 서사가사 교육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학술지 논문>

(1) 장르론 및 일반론

김학성, 「가사의 장르적 특성과 현대사회의 존재의의」,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김대행, 「가사와 태도의 시학」,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함복희, 「歌辭의 大衆의 疏通 方案 研究」, 『語文研究』 第139號,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이정옥, 「가사의 향유방식과 현대적 변용문제 -경북의 현대 내방가사를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전일환, 「가사의 유형분류문제 재론」, 『한국언어문학』 제6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8.

김신중, 「가사의 형태적 변화와 현대적 수용」,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강흥구, 「울진 방언 가사(歌辭)의 운율 연구」, 『한말연구』 제23호, 한말연구학회, 2008.

(2) 작품 연구

-개별 작품론

정인숙, 「<만연사>에 나타난 자전적 술회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이승복, 「<작정가>의 의미와 의의」, 『선정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정무룡, 「새로 발굴한 풍수가사 <청금곡(靑錦曲)>의 검토」,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정무룡, 「<덴동어미 화전가>의 형상화 방식과 함의」, 『韓民族語文學』 제5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하윤섭,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노처녀가(1)> -규방가사 권역에서 향유된 <노처녀가(1)>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4집, 국어문학회, 2008.

김윤희, 「<표해가>의 형상화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고순희, 「<경복궁영건가(景福宮營建歌)>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이병철, 「나옹작(懶翁作) <서왕가(西往歌)> 일고(一考)」, 『한국사상과 문화』 제4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최규수, 「<석별가>에 나타난 처녀들의 이중 욕망과 '철들다'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정한기, 「<연행가>에 나타난 객수의 특징과 그 의미 -『국역 연행론 선집』에 수록된 연행록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1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김석희, 「<노처녀가> 이해의 시각」, 『선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 박연호, 「<陋巷詞>의 우의성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제28집, 개신어문학회, 2008.
- 박연호, 「<남즈가>에 제시된 조선후기 중간계층의 삶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65집, 한국언어학회, 2008.
- 최규수, 「아버지 作 誠女歌의 變移樣相과 詩歌教育的 含意」, 『語文研究』 第140號,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안혜진, 「<북관곡(北關曲)>의 서술태도와 소통기반」, 『우리어문연구』 제31집, 우리어문학회, 2008.
- 조연숙, 「<일민가> 연구 -작가의식과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 -작품 유형론

- 백순철, 「조선후기 여성기행가사의 여행 형태와 현실인식」, 『고전과 해석』 제5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 김수경, 「'여행'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탐색 -여성 기행가사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년.
- 정홍모, 「영조조(英祖朝)의 유배가사 연구 -<속사미인곡>과 <북찬가>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5집, 국어학회, 2008.
- 유정선, 「19세기 중국 사행가사에 반영된 기행체험과 이국취향 -<서행록>과 <연행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이주영, 「'사미인(思美人)'의 이중성과 국어교육」, 『선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 박애경, 「자전적 가사와 젠더 -가사의 여성수용과 관련하여-」, 『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 이승남, 「정훈가사에 나타난 이념과 현실의 정서적 형상화 -<성주중흥가>, <탄궁가>, <우활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4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노규훈, 「조선 후기 교육 저변의 확대와 가사문학의 대응 -<팔역가>와 <오륜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7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 정인숙, 「남성작 애정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형상화 방식 -<금루사(金縷辭)>와 <농서별곡(隴西別曲)>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나정순, 「규방가사의 본질과 경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 박요순, 「女流歌辭에 表白된 國家意識」, 『한남어문학』 제32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8.
- 최미경, 「충신연주시자에서의 주체와 타자」, 『국문학연구』 제18호, 국문학회, 2008.
- 이도흠, 「18~19세기 가사에서 상품화폐경제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 김진희, 「조선전기 강호가사의 시학」,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 고순희, 「<경복궁중건승덕가라>와 <북궐중건가>의 작품세계와 형식적 변모」,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 -가사 한역 연구

- 조혜숙, 「<關東別曲> 한역의 추이와 그 시가사적 의의 - 兪漢宰의 『山雷關尺牘』 소재 한역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제16집, 한국한시학회, 2008.

#### -종교가사 연구

- 김동국, 「佛敎歌辭의 思想分類考」, 『우리文學研究』 제23집, 우리문학회, 2008.
- 이상원, 「東學歌辭에 나타난 侍天主 사상 연구」, 『우리文學研究』 제24집, 우리문학회, 2008.
- 전재강, 「경허 가사에 나타난 수행법과 표현 방식」, 『語文學』 第99輯, 한국어문학회, 2008.
- 조원형, 「천주가사 <사향가>에 대한 텍스트언어학적 검토」, 『텍스트언어학』 제24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8.
- 이복규, 「개신교가사에 대하여」, 『온지논총』 제18집, 온지학회, 2008.

## (3) 타학문 연계 연구

-문학치료학

박경주, 「규방가사 창작에 담긴 문학치료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교육학

정병현, 「가사 교육의 현황과 창작의 필요성」,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8.

이주영, 「戀情歌辭에 나타난 常套性의 교육 내용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2.

이나향, 「조선 후기 가사의 교육적 가능성 검토 -〈만언사〉에 나타난 재현의 인식을 중심으로-」, 『배달말교육』 제29집, 배달말교육학회, 2008.

## 5. 잡가 및 근대시가

고정희, 「'비유기적' 노랫말을 지닌 고전시가의 재해석 -잡가 <제비가>를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권도희, 「1910년대 창가와 잡가」, 『한국어문학연구』 제5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박지애, 「유성기음반 소재 잡가의 현황과 레퍼토리의 양상」, 『어문학』 제99집, 한국어문학회, 2008.

구인모, 「가사체(歌辭體) 형식의 창가화(唱歌化)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 제5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최은숙, 「20세기 전반기 대중가요에 나타난 '타국' 인식과 형상화 방식」, 『한국민요학』 제23집, 한국민요학회, 2008.

송기한, 「동아시아의 시가문학과 근대의 발견 : 『독립신문』 시가에 나타난 근대의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 6. 일반론 및 기타

&lt;단행본&gt;

김상훈, 『청산에 살어리랏다 : 겨레고전문학선집 35 - 歌謠集』, 보리, 2008.

김용찬, 『조선의 영혼을 흠친 노래들 : 고전시가로 만나는 조선의 풍경』, 인물과 사상사, 2008.

박애경, 『한국 고전시가의 근대적 변전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 한창훈,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2』, 월인, 2008.  
김명준, 『한국고전시가의 모색』, 보고서, 2008.  
류수열, 『고전시가 교육의 구도』, 역락, 2008.  
나정순, 『고전시가의 전통과 현재성』, 보고서, 2008.

<학술지 논문>

- 성호경, 「한국시가의 어조(語調) 유형 분류 시론(試論)」, 『한국시가연구』 제25집, 한국시가학회, 2008.  
조세형, 「동아시아의 시가문학과 근대의 발견 ; 조선후기 시가문학에 나타난 근대와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24집, 한국시가학회, 2008.  
최홍원, 「'역군은(亦君恩)' 표현과 경험의 세계」, 『고전문학과 교육』 제16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김종진, 「잡가·민요·가사의 경계에 대한 탐색」, 『한국어문학연구』, 제5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권정은, 「문화교육과 고전시가의 맥락적 정보」, 『새국어교육』 제79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신재홍, 「나뭇잎과 범나비 -<제망매가>와 <사미인곡>의 비교-」, 『선청어문』 제3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8.  
김용찬, 「고전시가, 논쟁의 복원을 위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37집, 민족문학사학회, 2008.  
김창원, 「조선시대 서울인의 심상지도와 「戀君」 시가의 지역성」, 『서울학연구』 제31집,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8.  
김창원, 「조선후기 近畿 지역 강호시가의 지역성」, 『시조학논총』 제28집, 한국시조학회, 2008.  
김창원, 「지역 고전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어문논총』 제49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하윤섭, 「17세기 송강 시가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제37집, 민족문학사학회, 2008.  
조규익, 「우리 시가(詩歌) 속의 어부(漁父) 형상과 그 의미」, 『고시가연구』 제22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조규익, 「서평 : 먼지 속에서 찾아낸 우리 음악의 주춧돌 -안자산의 『조선음악연구』를 읽고-」, 『온지논총』 제20집, 온지학회, 2008.  
김진희, 「절대적 존재에 대한 사랑 -고려속악(高麗俗樂)과 정철(鄭澈)의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의 비교-」,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년



- 김문기, 「도산구곡(陶山九曲) 원림(園林)과 도산구곡시(陶山九曲詩)고찰」,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3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2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 서철원, 「鄉歌에서 俗謠로, 두 가지 서정성의 대칭과 응회」, 『고전과 해석』 제24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 김진욱, 「정철 국문시가의 문예미 연구」, 『고시가연구』 제2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